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가을걷이를 다 마친 들녘은 허허로워서 윤기를 잃었다. 그 밟나던 누런 벼의 빛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니 주위는 말할 수 없는 삭막함과 공허함만 남았다. 눈길 가는 곳마다 까칠하니 비어서 눈빛마저 아위어가는 느낌이다.

한때 정들었던 사람이 불현듯 곁을 떠날 때의 아쉬움과 처연함이 저 들판 가운데 숨어 있는 듯해서 늦가을은 잃어버린 정을 눈물겨워하는 바보 같은 사람의 흥증을 닮았다.

하지만 휴일 하오의 산책길을 홀로 걷는 일은 고요와 적막을 마음에 들이는 것이므로 소중한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소로나 농로를 걷다 보면 숲한 야생화를 만나게 되고 간혹 꽃들이 말을 걸어와서 곁을 멈출 때가 있다. 벌개미취, 쑥바쟁이, 구절초를 구별하면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호기심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

한때나마 누런 들판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눈의 즐거움을 만끽했지만, 자연은 늘 지혜로워서 상황을 변화시킬 줄 안다.

눈을 들어 무연한 눈빛으로 멀리 강 건너

쓸쓸해서 더 소중한 늦가을

를 살펴보면 노란 은행나무가 강 따라 줄지어 서 있다. 멀어서 더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정경이 위로를 준다. 벼의 누런 빛이 어스레 은행나무에 정을 주었는지 노랗게 물든 잎들이 소곤거리듯 앞전해 보인다. 빼앗긴 벼의 누런 빛을 은행나무의 노란 앞에서 발견하고 나서야 잃어버린 빛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다.

휴일 늦은 아침에 모처럼 벼를 만나러 대저에 나갈 때, 그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지나갈 무렵에는 왠지 기분이 착 아래로 가라앉는다. 코스모스가 길 따라 연이어 늘어선 모습에 외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함께 하늘거려도 보는 사람에 따라 외로우면 외로운 거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가수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듣노라면 절로 경쾌하고 흥겨워서 마치 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처럼 몸과 마음이 한들한들해질 때가 있다. 김상희도 그런 느낌과 분위기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작사가로부터 그 가사가 나온 연유를 듣고는 기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좀 어둡게 할까요?" 했더니 "아니요" 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아주 친한 친구의 죽음을 맞아 장지까지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벼을 보며 그 친구가 연상 돼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한다.

이처럼 슬픈 이야기를 작곡가는 경쾌한 멜로디로 만들어 놓았으니, 경쾌함 속에는 슬

픈 사연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알고 보면 인생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던가.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네' 이 구절을 음미하면서 필자는 생각했다. 함부로 꽃 속을 들여다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으므로 그냥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나 윤동주(1917-1945)는 「코스모스」에서 어릴 적 부끄러움이 내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대의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했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라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 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입동 지나자 월동 준비를 서둘러 마쳤다. 고추해아 거실 침상에 실내 텐트를 치고 보일러엔 난방 기름 두 드럼을 넣었을 뿐이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부족한 난방은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한낮의 겨울 햇빛을 받아 가슴에 온기를 담으면 된다.

기고



이경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다. 초기대 AI 시대를 맞아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확보는 필수 과제로, 대한민국이 AI 선도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최적지는 명백히 광주다.

광주는 이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이 단지는 R&D, 인재 양성, 창업 육성 등 AI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실제 주요 플랫폼 기업과 투자사들도 광주에 민간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산업 시너지를 강조했다. 이는 광주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국가 AI 컴퓨팅

AI컴퓨팅센터, 국가 미래의 기준 만들어 가는 광주로

터는 이 집적단지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 AI 생태계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AI 경쟁력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광주 유치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적 전략이자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GICON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운영,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AI와 문화콘텐츠 융합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들어오면 GICON이 육성 중인 ICT·콘텐츠 기업들이 초거대 AI 모델, XR·VR, 디지털 휴먼 등 첨단 기술 기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곧 지역 창업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져 국가 디지털 경제 실현의 촉매가 될 것이다.

AI 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의 비전이자 지역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과 'K-콘텐츠 테크타운' 실현의 핵심 동력이다. 광주는 광주CGI센터를 중심으로 20년간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해왔으며, 2022년에는 AI·XR·VR·AR 기술을 융합한 '광주실감콘텐츠

큐브'를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AI와 문화기술(CT)을 융합한 'K-콘텐츠테크타운'을 추진 중이다.

AI 컴퓨팅센터는 이 두 사업의 '두뇌' 역할을 한다. 첫째, K-콘텐츠 산업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초고속 연산 환경을 제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아시아문화재단이 보유한 방대한 문화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AI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광주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된다.

광주는 이미 AI 산업의 씨앗을 뿌렸고, 이를 거목으로 키워낼 '국가 AI 컴퓨팅센터'라는 토양만 남았다. 비록 최근 공모가 무산됐지만,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컴퓨팅센터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구축은 흔들림 없는 방향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ICT·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경험과 창업기업 육성 역량을 결집해, AI 컴퓨팅센터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이자 K-콘텐츠 혁신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I 컴퓨팅센터는 광주에서 출발해 콘텐츠와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확장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자투고

농업현장에서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증가로 인해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9-2023)전남의 농기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5건으로 전체 1천765건 중 20.3%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총 47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다.

도내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50대가 트랙터 점검 중 로터리 날에 끼여 숨졌고, 같은 달 강진에서 경운기 몰다 적재함에 깔려 사망했다. 영암군에서는 농약을 치던 80대 농부가 농약살포기와 나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여수에서 밭갈이 로터리 작업 중 70대 남성이 경운기 몰고 후진하다 넘어지면서 경운기에 깔렸고, 고흥 한 밭에서 남성 A씨가 벼집을 묶는 베일러 기계를 운전하던 중 기계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

수확철 농기계 중대사고 요주의

지는 등 도내에서 계속 안타까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맞춤형 안전교육, 농로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농기계 이용시 적절한 작업법,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 작업하고 농로·경사로·모퉁이와 같이 농기계로 전복 및 전도 되기 쉬운 좁은 공간을 지나 갈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그리고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 등으로 도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은 진입 전에 살펴 길의 안쪽을 이용해야 한다. 비탈진 곳에 농기계를 세워 작업할 경우에는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농기계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기계를 도로에서 운행 할 때는 교통법규

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 운전은 치명적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절대해서는 안된다.

야간 운행시 반사지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운행해야 하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도로에 농기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전에 차량들이 도로가에 경운기 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더러 발생했었다.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은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들이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통장, 가족들이 적극 나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적극적 계몽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풍요로운 수확이 되길 바란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실효성 논란 광주 AI 2단계 시민 우려도 나오는데

광주시의회가 6천억원 규모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행정사무감사에서 4천억원 이상의 핵심 R&D 예산이 '전국 공모'로 설계돼 지역 기업과 경제가 얻을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사업 대부분이 특정 연구기관과 기술 인력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광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AI 기업이 337곳에 달하는데, 허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박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발끈했다. 먼저 귀속되는 국비가 306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 AX R&D는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전북·경남 모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전국 공모가 원칙이라며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평가 선정 시 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논리를 폈다.

실질적 효과와 미흡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 비판에 시민들과 광주를 신뢰한 기업들은 우려하는 모습이다. 본래 목적과 다른 '속 빈 강정'이라

면 정말 큰 일 아닌가. 반면에 광주시는 AI 생태계가 이미 뿌리내렸다고 평가한다. 국가AI데이터센터 개관, 인제 양성 사다리 구축, 각종 실증장비 확보 등으로 국내 유일의 공공주도형 AI 시스템을 완성했고, 160개 기업이 65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근거로 들었다.

AI 중심도시라는 광주의 꿈이다. 2단계인 AX 실증밸리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국가AI연구소 설립, 국가집적단지 지정 등으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AI 3강 도약을 실현해내겠다는 목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도 제안해 주목된다. NPU는 신경망처리장치를 일컫으며, 차세대 AI 추론 인프라로 꼽힌다.

'AI 시티' 최적지 광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변하지 않았다.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긴밀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성취를 내놔야 한다. AI 대전환기,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차별의 상징 호남선 KTX 증편 이제부터가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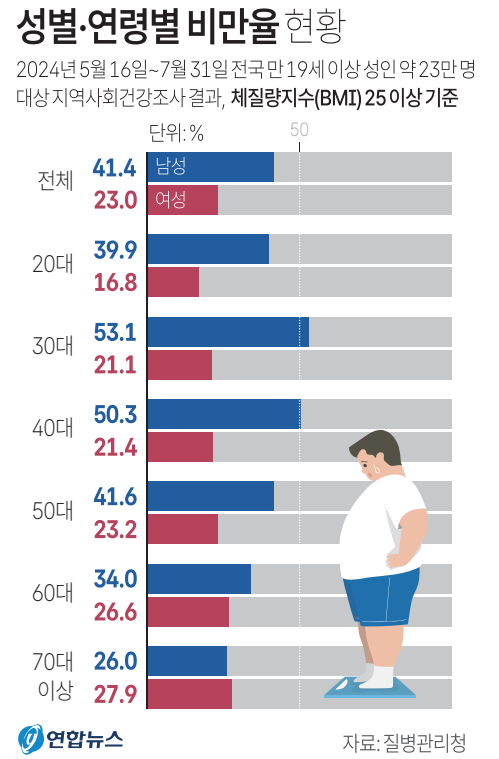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호남선 KTX 증편을 공지했다. 기존 서울 용산(행선)-전북 익산 구간을 운행하던 산천 4편 중 2편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아쉬운 감이 있지만 송정역 환접 완화가 기대되는 등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 차별의 상징이었다. 호남선은 2005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된 이후 경부선에 비해 무려 11년이나 늦은 2015년 개통되고, 시민들은 시간과 요금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실제 운행횟수와 피크시간에서 2배 이상이고, 수요가 몰리는 주말 증편은 2배 차이가 났다. 좌석수도 주중은 약 2배, 주말은 3배 격차를 보였다. 급기야 광주송정역에서 지난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결의대회가 진행됐고, 또 10월에는 강기정 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북구갑)을 중심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지속 협의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역시 미흡한 게 사실이다. 여전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열차도 논란이다. 호남선은 편당 좌석이 379석에 불과한 '산천'인데 반해, 경부선은 955석에 달하는 'KTX-1'과 신형 '정릉'을 집중 투입하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승차표 구하기 전장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명절 성수기는 고사하고 출·퇴근 시간, 주말을 중심으로 예매 대란은 불가피하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다. 운행 편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차량 대형화를 위해서도 더 의지를 모아야 한다. 정 의원은 열차운영계획 개편, SRT와의 역할 분담까지 2단계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KTX다. 하지만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 이동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지역 간 형평성에 위배됐다. 수도권 접근성에서 취약하다. 단단히 뻐난 민심에 정부와 철도공사가 뒤늦게 움직였다. 결의대회 당시의 결연한 다짐이면 충분하다. 철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10년 숙원이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픽 뉴스



한국 성인 비만율이 지난 10년간 1.3배로 늘어나 지난해 기준 3명 중 1명은 의학적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의 유병률이 높았는데, 30~40대 남성의 절반은 비만이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만 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심층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34.4%였다. 2015년 26.3%에서 1.3배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4%, 여성은 23.0%로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1.8배 높았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3.1%, 40대 남성은 50.3%로 절반이 넘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만율도 증가해 60대(26.6%), 70대 이상(27.9%)에서 가장 높았다. 비만율을 17개 시도별 광역 단위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6.8%)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세종(23.1%)이었다. OECD 통계에 따

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과체중·비만 비율은 36.5%로 OECD 평균인 56.4%보다 20%포인트가량 낮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